

## 쌀면용 초다수벼 품종 ‘팔방미’의 적정 이앙기와 수확기

배현경<sup>1\*</sup>, 김상열<sup>1</sup>, 서종호<sup>1</sup>, 황정동<sup>1</sup>, 오명규<sup>1</sup>

<sup>1</sup>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

### [서론]

팔방미는 쌀면 가공용을 목적으로 육성된 통일형 초다수벼 품종으로 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쌀의 재고량 안정화 및 농민의 수입 안정화를 위해 육성되었다. 이러한 가공용 품종의 경우 쌀의 수량뿐만 아니라 가공을 위한 품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적정 이앙기 및 수확기를 구명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팔방미의 적정 이앙기를 구명하기 위해 2015년 ~ 2016년 까지 2년간 실시하였다. 5월 10일, 5월 17일, 5월 24일, 5월 31일, 6월 7일, 6월 14일 등 총 6시기에 이앙을 실시하였고 적정 수확기를 구명하기 위해 출수기 이후 40일, 45일, 50일, 55일, 60일 등 총 5시기에 수확을 실시하여 각 이앙기별, 수확기별 현미수량 및 품질을 측정하였다. 재식거리는 30 x 12 cm였고 시비량은 N-P-K 각각 18-9-11(kg/10a)이었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팔방미의 이앙기에 따른 현미수량은 5월 17일 과 5월 24일에 이앙하였을 때 각각 743, 719 kg/10a 로 가장 높았다. 또한 수확시기에 따른 현미수량은 출수 후 45일 이후에 수확시 673 kg/10a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여주었는데 출수 후 45 ~ 60일 사이에 수확하였을 때 수량성의 차이는 없었다. 쌀면용 품종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요소인 아밀로즈 함량을 측정한 결과 5월 24일에 이앙한 구가 27.7%로 가장 높았으며 5월 24일을 제외한 5월 10일 ~ 6월 7일 사이에 이앙한 구간의 아밀로즈 함량은 27.3 ~ 27.5% 정도로 차이가 없었고 6월 14일에 이앙한 구는 26.5%로 낮았는데 이는 등숙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등숙률 저하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. 수확기에 따른 아밀로즈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. 결과적으로 팔방미는 5월 17일 ~ 24일에 이앙하여 출수 후 50 ~ 5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량성 및 품질을 보여 주었다.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126502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55-350-1183, E-mail. dadaeboy@korea.kr